

보도시점 2024. 11. 19.(화) 14:00 배포 2024. 11. 19.(화) 09:00

“핀테크 - 금융회사 - 투자기관 만남의 장” 「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」 개최

- 핀테크 - 금융회사 협업 및 핀테크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교류 행사
- 금융위원회,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과감한 디지털 금융정책 추진

금융위원회는 11월 19일(화), 서울 창업허브(공덕)에서 핀테크 기업·금융회사·투자기관 등 핀테크 산업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「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」(이하 “오픈 네트워킹 데이”) 행사를 개최하였다.

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구성원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다. 금융위원회는 동 행사를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,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.

- **일시·장소:** '24.11.19(화) 14:45, 서울 창업허브(공덕) 대강당
- **참석자:** 핀테크 산업 구성원, 금융회사(8개), 투자기관(4개), 정책금융기관(3개)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, 한국핀테크산업협회, 한국성장금융 등 유관기관
- **내용:** ①핀테크 업계 간담회(사전행사), ②금융위원회 김범기 상임위원 축사, ③핀테크-금융회사 협업 노하우 등 강연 및 투자기관 역제안(Reverse IR), ④금융회사·투자기관 상담부스 운영 등

본 행사에 앞서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은 금융지주사 운영 핀테크 랩 담당자, 핀테크 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. 참여 핀테크 기업은 핀테크 랩의 보육을 통한 창업·성장에 대한 경험 및 투자 등 애로 사항을 공유하였다. 김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 성장(Scale-up)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협업, 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에 대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.

김 위원장은 간담회 의견을 바탕으로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핀테크 투자 확대 및 협업이 용이하도록 출자 규제와 위·수탁 규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 또한, 지급서비스 분야와 협업이 활발한 인증·데이터·AI 분야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자금융제도 및 디지털 인증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.

아울러, 정부는 금융지주의 해외 영업망과 투자회사의 IR 기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국내외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 진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.

본행사에는 김범기 상임위원이 참석하여 “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, 투자기관 간 소통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뜻깊은 자리” 라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. 또한, “다소 침체되었던 핀테크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있으며, 핀테크 이네이블러(Enabler)로 대표되는 B2B 분야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.” 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.

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업종 간 협업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하는 ‘기회의 장’ 이 되어 금융권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길 바란다.” 고 전했다.

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강연과 투자기관 역제안(Reverse IR), 상담부스, 자유 네트워킹 행사로 이루어졌다.

강연에서는 2024년 핀테크 업계 동향(삼정 KPMG)과 망분리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(PwC 컨설팅)에 대해 다뤘다. 또한, 핀테크 리더기업 강연에서는 ‘스타트업 법인카드’ 기업 고위드(Gowid)가 금융회사와 협업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했다.

한편, 투자기관 역제안(Reverse IR) 순서에는 총 4개의 「핀테크혁신펀드」 위탁운용사*가 펀드 조성 취지와 투자 규모, 대상 및 목표 등 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했다. 이를 통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초기 기업이 투자자들의 운용 전략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

* 데일리파트너스, 나이스투자파트너스, 마젤란기술투자, 디티앤인베스트먼트

또한, 금융회사, 정책금융기관, 투자기관, 리더 멘토 기업이 총 16개의 상담부스*를 운영했다. 부스에서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, 리더 멘토 기업은 초기 핀테크 기업에게 투자 유치 노하우 및 성장 경험 등을 전달했다.

* DGB금융지주, 신한금융지주, KB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NH농협은행, 하나은행, BNK금융지주, 한화생명, IBK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데일리파트너스, 나이스투자파트너스, 마젤란기술투자, 디티앤인베스트먼트(이상 4개 투자기관은 2교대), 뉴지스탁, 쿼터백, 어메스, 루센트블록 등

특히, 금융회사, 정책금융기관, 투자기관 상담부스는 심사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금융회사와의 협업 및 대출·보증·투자 심사 등에 대해 실무적 이슈를 설명하고 실제 지원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상담이 되었다.

금융위원회는 반기별로 개최 되는 「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」 행사 외에도,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「코리아 핀테크위크」, 「금융회사-핀테크 상호만남(Meet-up)」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	책임자	과 장	신상훈 (02-2100-25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현 (02-2100-2534)
	한국핀테크지원센터 경영기획본부	책임자	본부장	황인덕 (02-6375-1510)
		담당자	차 장	한현탁 (02-6375-1512)
	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성장금융실	책임자	실 장	노해성 (02-2090-9150)
		담당자	팀 장	이명근 (02-2090-9104)
	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기획실	책임자	실 장	정진국 (02-6949-2683)
		담당자	책 임	박시애 (02-587-2662)

